13. 이별과 그리움

送人, 自述

사랑과 이별, 그리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정서이다. 사랑이 애틋할수록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은 몇 곱절 더욱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다음 두 편의 시를 통해 가슴 미어지는 이별의 아픔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느껴 보자.

送人 _정지상

雨歇長堤草色多한대
送君南浦動悲歌라.
大同江水何時盡고
別淚年年添綠波라.

"동문선"

✿ **정지상**(鄭知常, ?~1135) 김부식과 함께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
이옥봉(李玉峯, ?~?)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

새로 배울 한자

*歇 **헐** 쉬다　堤 **제** 둑, 제방　浦 **포** 물가　淚 **루** 눈물　添 **첨** 더하다
魂 **혼** 넋　*紗 **사** 깁, 비단　妾 **첩** 첩　跡 **적** 자취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알 수 있다.
-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이해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自述 _이옥봉

近來安否問如何오　　月白紗窓妾恨多라.

若使夢魂行有跡이면　　門前石路已成沙라.

"가림세고"



읽고 풀이하기



*送人

그대를 보내며

비가 쉬는 → 비 그친, 비 개인
雨歇長堤 / 草色多
풀색이 많다 → 풀색이 짙다

그대(2인칭 대명사)
送君南浦 / 動悲歌
지명 움직이다 → 북받친다

大同江水 / 何時盡
어느 때에 ~ 가?
다하다 → 마르다

別淚年年 / 添綠波
해마다

*시의 형식: 칠언 절구
운자(韻字): 多, 歌, 波

*南浦: '남포로', '남포에서' 두 가지 해석 가능

*自述

내 마음을 쓰네

近來安否 / 問如何
근래, 요즘 어떠하냐? → 어떠신지요?

月白紗窓 / 妾恨多
비단 창 첩, 저(1인칭 대명사, 시적 화자가 여성)

若使夢魂 / 行有跡
가는 곳, 걸음마다
만약 ~으로 하여금 … 게 한다면

門前石路 / 已成沙
이루어지다 → 되다

*시의 형식: 칠언 절구
운자(韻字): 何, 多, 沙

*紗窓: 비단으로 바른 창. 여인의 방을 상징함.

한시 읽기

- 오언시(五言詩): 山僧/貪月色 2자와 3자로 띄어 읽는다.
- 칠언시(七言詩): 送君南浦/動悲歌 4자와 3자로 띄어 읽는다.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1)- 絕句

- 제1구(起) 시상을 불러일으킨다.
- 제2구(承)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킨다.
- 제3구(轉)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한다.
- 제4구(結)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한다.

생각 넓히기

한시의 주인공에게 화답하기

'夢魂'의 서정적 자아에게 4구의 화답시나 간단한 편지를 써보자.

한시	화답시
近來安否問如何오	
月白紗窓妾恨多라.	
若使夢魂行有跡이면	
門前石路已成沙라.	

인문학 더하기

'시(詩)', 인류의 가장 유구한 정념(情念)인 '사랑'을 담는 진지한 그릇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최후까지 지속될 정념이 '사랑'일 것이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아름다운 환희의 순간과 애절한 사연들은 마음에만 가두어 둘 수 없게 들끓어 마침내 시로 표출된다. 시는 직설을 피하여 정제되고 응축된 시어에 심상(心象)을 녹여 내므로 거듭 음미할수록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 내며 격렬한 공감을 호소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른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서정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론 다 말해 버리지 않는 은근함이 긴 여운을 남기며 우리를 깊숙한 정서의 세계로 초대한다. 짧은 시구 사이에 숨은 뜻은 새길수록 따뜻한 영혼에 와 닿아 직설적 표현보다 엄숙하다. 또한 이런 시는 그 제목이 중요한 한 구절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제목과 함께 반복해서 읽으면 더욱 절절함을 느낄 수 있는 서정시 두 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네 마음 어딘가에
티끌 하나가 떨어져도
내 마음에서는
파도가 친다.

_ 김용택 '파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걸을 때 비 맞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그것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_ 베르톨트 브레히트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어휘력 키우기



1 '辶(辵)'이 들어간 한자

遣 견 보내다 _ 派遣 파견
迷 미 미혹하다 _ 昏迷 혼미
迫 박 닥치다 _ 臨迫 임박
邊 변 가 _ 邊方 변방
述 술 짓다 _ 敍述 서술
逸 일 편안하다 _ 安逸 안일
遵 준 좇다 _ 遵法 준법
遷 천 옮기다 _ 遷都 천도
遍 편 두루 _ 普遍 보편
避 피 피하다 _ 忌避 기피

2 '糸'가 들어간 한자(Ⅰ)

終 종 마치다 _ 終了 종료
紛 분 어지럽다 _ 紛亂 분란
累 루 쌓다 _ 累積 누적
絹 견 비단 _ 絹麻 견마
緖 서 실마리 _ 情緖 정서

3 모양이 비슷한 한자

堤 제 둑, 제방 _ 防潮堤 방조제
是 시 옳다 _ 是非 시비
提 제 끌다 _ 提供 제공

綠 록 푸르다 _ 草綠同色 초록동색
緣 연 인연 _ 因緣 인연

4 우리말 같은 한자어

- 安否 **안부** — 편안하게[安] 잘 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否]
- 勿論 **물론** — 더 논[論]할 것도 없이[勿]
- 亦是 **역시** — 또한[亦] 이것도[是]
- 只今 **지금** — 다만, 바로[只] 이때, 이제[今]
- 都大體 **도대체** — 都(도읍, 서울) + 大體(큰 줄기가 되는 몸체)
  → '都'는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접두사. '大體'는 '기본이 되는 큰 거리'의 의미
- 甚至於 **심지어** — 심하기가[甚] ~에[於] 이를[至]정도
- 於此彼 **어차피** — 이것[此]에도[於] 저것[彼]에도[於], '이래도 저래도'의 의미
- 作亂 **작란→장난** — 어지러움[亂]을 만듦[作].
  → 활음조 현상으로 '작란'이 '장난'으로 발음되어 굳어짐.

새로 배울 한자

遣 **견** 보내다
派 **파** 물갈래
昏 **혼** 어둡다
臨 **림** 임하다
邊 **변** 가
逝 **서** 가다
敍 **서** 차례
遵 **준** 좇다
遷 **천** 옮기다
遍 **편** 두루
普 **보** 널리
避 **피** 피하다
忌 **기** 꺼리다
了 **료** 마치다
紛 **분** 어지럽다

확인하기

[1~3]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나) 近來安否問如何　　月白紗窓妾恨多.
若使夢魂行有跡　　門前石路已成沙.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운자는 '多', '歌', '波'이다.
② 한국 한시 중 이별시의 백미로 꼽힌다.
③ 선경후정의 전형적인 시상 전개를 이룬다.
④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 절묘하게 대비된다.
⑤ 기구와 승구의 대비적 심상이 슬픔을 더욱 증폭시킨다.

2. (나)의 結句에 대한 풀이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門 → 前 → 石 → 路 → 已 → 成 → 沙
② 門 → 前 → 石 → 路 → 已 → 沙 → 成
③ 門 → 前 → 路 → 石 → 已 → 成 → 沙
④ 門 → 石 → 路 → 前 → 沙 → 成 → 已
⑤ 門 → 石 → 路 → 前 → 成 → 沙 → 已

3. (가)와 (나)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①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不在)로 인한 아픔이 토로되고 있다.
② 시적 화자의 정서 표출은 과장법과 가정법으로 이루어진다.
③ 자연물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의탁하여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④ 환유법이 쓰인 특정 시어로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⑤ 편지투이며 전구(轉句)·결구(結句)는 원인·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累 **루** 쌓다　絹 **견** 비단　麻 **마** 삼　緖 **서** 실마리　潮 **조** 조수
緣 **연** 인연